

# 광주신세계, 광주 대표 맛집 7곳과 상생

### '푸드 플라자'에 궁전제과·양동통닭·소맥베이커리 등 입점 8층 럭셔리 리빙 전문관 오픈 등 13년 만의 전관 리뉴얼

광주신세계가 지역 업체 입점을 늘려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을 강화한다. 오는 6일 '궁전제과', '양동통닭' 등 광주 맛집으로 꼽히는 지역 음식 브랜드 7곳이 광주신세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매장 개선작업의 하나로 오는 6일 유명 음식점 21곳이 신규 참여하는 '푸드 플라자'를 지하 1층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푸드 플라자'에는 궁전제과·다르다김밥주먹밥·더솔·육이반상, 양동통닭·신선한 주방·소맥 베이커리(7·8월) 등 광주 대표 음식점 7곳이 입점한다.

광주 현지 법인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 매장 비중을 늘렸다는 것이 광주신세계 측 설명이다.

특히 1973년 문을 열어 전국 5대 제과점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궁전제과'와 1969년부터 옛날 통닭 조리법을 고수하고 있는 '양동통닭'이 간판 매장으로 내세워진다. 이외 '빵맥(빵+맥주)' 가게로 유명세를 탄 종장로 '소맥베이커리'와 샐러드 카페 '신선한 주방' (선운지구), '다르다김밥주먹밥' (상무지구·봉선동), 낙지볶음이 대표 메뉴인 '더솔', '육이반상' 등도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다.

전국의 유명 맛집도 지역 최초로 유치된



최민도 대표이사

이름을 올린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2006년 이후 13년 만의 전관 리뉴얼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구찌, 생로랑, 몽클레르, 발렌

시아가, 보테가베네타 등 20~30대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도입해 호응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LG전자 등 가전 제품과 프리미엄 생활 상품군을 만날 수 있는 '럭셔리 리빙 전문관' (8층)이 생기고 패션 스트리트가 세단장을 마친다.

이마트 광주점과 연결된 패션 스트리트는 기존 2000여 평(6610㎡)에서 500여 평이 더 늘어난다. 지난 달 24일에는 네파, 엄브로 등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가 새로 문을 열었고 하반기 중으로 신규 입점을 마무리한다. 푸드 플라자와 같은 층에는 전문 식당가가 오는 11월 조성된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는 "큰 공사 중에도 매장을 찾아주는 고객들께 감사하다"며 "지역 현지법인의 역할을 다하고 쇼핑 환경을 지속적·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7.85 (+26.11) ↓ 금리(국고채 3년) 1.58 (-0.01)  
 ↑ 코스닥 697.50 (+1.03) ↓ 환율(USD) 1182.10 (-8.80)

## 광주은행, 광주세무사회와 업무협약



### 추천 업체 금리우대 등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세무사회 거대 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사회 회원과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 협약을 진행했다.

광주은행과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역

소상공인과 성장 유망한 지역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추천 업체에 대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최대 1%p의 금리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상생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광주TP가 도와드려요"

### 13일까지 사업화 지원 기업 모집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도와드려요." 광주테크노파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하는 '광주지역 기업 사업화 신속지원사업(fast-track)' 수혜기업을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가전, 복합금융,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등 광주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광주지역 중소·중견기업으로, 4개월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특허, 컨설팅, 마케팅 등이다.

적격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이 사업에 최초 선정된 기업에게는 컨설팅(500만원 이내)을 포함해 최대 2500만 원을, 일반 패키지는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아이템이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itp.or.kr) 및 지역산업중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오비맥주(대표 고동우·앞줄 왼쪽 네번째)가 3일 '100+지속경영위원회' 창단식을 열고 친환경 경영을 다짐했다. <오비맥주 제공>

## 오비맥주 "맥주 운반 차량 30% 친환경차로 교체"

###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감축 방침

오비맥주(대표 고동우)는 오는 2025년까지 맥주 운반 차량의 30% 이상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물류(Green Logistics) 계획을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비맥주는 주류업계 최초로 우선 친환경 전기 트럭 '칼마토EV' 한 대를 현장에 투입한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물류 도입 ▲재생 가능한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영업 분야 친

환경 차량 도입 ▲포장재 재활용 확대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7년 대비 25% 감축할 방침이다.

또 사내에 '100+ 지속경영위원회'를 두고 농업, 물 보급, 자원 순환, 기후변화 등 4개 분야에서 친환경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고동우 오비맥주 대표는 "환경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 동시에 맥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위원회와 함께 환경과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의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는 친환경 기업 비전을 선언하고 스마트 농업, 수자원 관리, 재활용 패키징, 기후변화 대응 등 4개 분야에서 소비자들과 함께 100년 이상을 동행한다는 의미의 '100+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인구 천명당 치킨집 수 광주·전남 가장 많다

### 전남 2.43·광주 2.34개...전남 창업보다 폐업 ↑

전남과 광주가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태현 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 2.43개, 광주 2.34개로 전국 주요 시도 중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8만7000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이다.



광주 지역 치킨집 수는 3418곳(서구 964·광산구 938·북구 762·남구 431·동구 323)이다. 전남에는 4554개의 치킨집이 있는데 여수(1059),순천(869), 목포(840)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치킨집 창업만큼 폐업도 많았다. 최근 5년(2014~2018년) 치킨집 창·

폐업 현황을 보면 광주에서는 1471개의 치킨집이 창업했지만 같은 기간 1428곳이 문을 닫았다. 전남지역은 1533곳이 개업했지만 1855곳이 문을 닫아 오히려 폐업한 경우가 322건 더 많았다.

김태현 위원은 "신규 프랜차이즈의 시장 진입이 늘고 소비자의 성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